

희망

Yes! I'm your(Hope)!



2015年, 새로운 도약을 위한
SBI저축은행의 이야기

Contents

16

- ● 진화하는 SBI
- 06 CEO'S LETTER
- 08 신년 특집
- 12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 16 SBI 희망 NEWS
- 20 SBI 이모저모 새 일터 미리보기



18



16



발행인 김중욱
 발행일 2015년 1월 1일(계간)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부
 기획 및 편집 SBI저축은행 홍보부 김원준(02-6201-7297) / (주)맥켄에릭슨

●● 소통하는 SBI

- 24 나는 SBI人이다 신입 텔러 선·후배의 만남
- 28 부서탐방 1 리테일영업1부
- 32 부서탐방 2 인천·광주 지점
- 36 힐링타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힐링 선물
- 40 SBI 수사대 SBI Infographics
- 42 고맙습니다 고객으로부터의 칭찬 메시지



36

32



●● 함께하는 SBI

- 46 2015 가이드 201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정보 안내
- 48 생활 TIP 실패하지 않는 해외 직구
- 50 강북멋쟁이 센터원 주변 100배 즐기기
- 52 추천합니다 따뜻한 감성을 위한 추천도서



50

part. I

진화하는
SBI



 저축은행

Evolving SBI



06

CEO'S LETTER •

08

신년 특집 •

12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

16

SBI 희망 NEWS •

20

SBI 이모저모 •

[대고객 메시지]

언제나 변함없이 SBI저축은행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를 돌아보면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으로 영업력을 점차 회복하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1위, 리딩뱅크 SBI저축은행은 작년 3월 이후 1조 3천여억 원의 자본증자를 통해 BIS비율 10%가 넘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서민과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과 금융편의 제공을 통해 저축은행 실적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SBI저축은행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SBI저축은행과 2,3,4 계열 저축은행의 법인 통합으로 자산 3조

8천억원, 업계 1위 저축은행 탄생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에도 지점을 설치하여 더 많은 지방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신규 예·적금 고객 10만명 확보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객 여러분께 약속 드린 경영 정상화와 법인통합, 신규 지점 개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관심 속에 저희 SBI저축은행은 언제나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한 책임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은행으로 한 층 더 성장해 나가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1등
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망찬 새해,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종욱

[대직원 메시지]

2015년은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해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

SBI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

어느덧 희망찬 2015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4년은 ‘경영 정상화’와 ‘법인 통합’이라는 SBI저축은행 역사의 큰 이정표를 세운 기념비적인 한 해였습니다. 바로 1년 전 우리 모두가 함께 약속했던 ‘확고한 성장기반의 구축’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 경기부진의 장기화와 신흥시장 성장세의 약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역시 저물기, 저성장의 장기화 기조 속에 부동산과 중소기업의 업황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경제성장률 3.9% 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욱이 LTV, 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저축은행 우량 고객들의 ‘시중은행 갈아타기’ 현상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2015년 한 해 동안 월 1,800억 원 수준의 신규대출 목표를 실현하여 수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재무 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 제반 인프라 구축, 부실채권 회수·매각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신상품 출시 및 채널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여신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또한 저축은행 업계의 리더로서 선제적인 시장분석으로 잠재적 기회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리딩뱅크로의 도약을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라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임직원은 힘겨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탐색하여 목표를 현실화하는 능력과 강인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확보한 우리의 성장동력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서로 힘을 모아 크나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SBI저축은행 출범 이후의 후속과제로 조직의 소통과 화합이 어우러지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기업문화가 바로 경쟁력’이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조직원의 소통과 화합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고, 올 한 해도 임직원 모두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2015 올미년 한 해, 우리 SBI를 안정성과 성장성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1등 저축은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키는 원년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종욱

| 신년특집 |

Fresh Start 2015

SBI저축은행 2015년 중점 추진 사업 & 목표

한 해를 갈무리하며

SBI저축은행은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의미 깊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업계 자산규모 1위이자 고객에게 희망을 주는

글로벌 금융그룹임을 입증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더욱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활약을 펼쳐나갈

각 본부의 중점 추진 사업과 목표를 담았다.

| 홍보부 |



전략재무본부

업계 1위를 넘어, 혁신과
미래의 통합 SBI저축은행으로!

전략재무본부는 2015년에도 '통합 SBI저축은행'이 흔들림 없이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략기획부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당행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합병 이후 전사의 유기적인 통합 및 시너지 극대화를 조기에 달성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익력 제고, 효율적인 비용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및 탄력적인 자금관리, 그리고 법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대내외의 불확실성 제거 등을 통해 '내실있는 성장'과 '경영합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업계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업계의 경계를 넘어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통합 SBI저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재경부는 2015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회계기준(IFRS) 결산 프로세스 도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IFRS 기준 재무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현하고, K-GAAP 기준 결산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정적인 결산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저축은행 업계 1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영업관련 회계처리, 세무관련 질의에 대해 전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드백할 것입니다. 경비 지급 프로세스 및 조회 시스템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비 지급과 효율적인 내역 관리 업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경영지원본부

전략적 경영지원을 통한
업계 1위 위상 확립!

지난 2014년 주요 이슈로 SBI저축은행 계열법인 합병, 새로운 동지가 될 센터원로의 이전 및 저축은행 업계 1위의 위상 확립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 인사부에서는 계열법인 합병을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하나되는 조직문화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임금체계의 성과지향적 고도화 및 변화·혁신 교육체계 신설을 통한 기존의 관성에서 탈피하는 통합된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총무부에서는 '전략적 경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 조직 통합'의 목표 아래, 우선 2015년 3월 새로운 SBI의 동지가 될 센터원 이전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옥 이전을 통해 사무공간 및 근무환경 개선, 문서관리 체계, 자산 통합 관리체계 등 경영지원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부는 영업력 극대화를 위한 광고마케팅 지원과 저축은행 업계 1위로서의 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평판 리스크 관리를 통한 업계 1위의 위상에 걸맞은 기업 이미지 제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신영업본부

기업금융 차별화 · 고도화를
통한 우량자산 및 수익성 확대

여신영업본부는 2014 회계연도 상반기 영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금융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SBI저축은행만의 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needs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당 본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2015년 3가지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우량자산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영업네트워크의 확대입니다. 과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기업금융 시장 내에서 당행의 입지는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영업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통한 연계영업, 타업권과의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업계 내 인지도와 평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구성원의 영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중심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은 시장 내 입지 확보입니다. 기업금융시장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평판은 최하위권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1년 동안 당행의 적극적인 영업과 시장 진출로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 캐피탈에 비해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적극적인 자세 등을 견지하여 시장 내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갈 것입니다.

IB본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No.1 IB본부

저축은행 업계에서 IB본부는 선도적 투자 및 체계적 자산운용을 통하여 업계를 리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SBI저축은행 출범 후 새로 신설된 IB본부는 Mezzanine, Fixed Income, Fund, Equity 4가지 분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설 후 단 한 건의 부실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 본부의 자량이며 8% 이상의 안정된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IB본부의 자금운용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말자'이고 두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말자'이고, 셋 번째 원칙은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잊지 말자'입니다.

앞으로도 IB본부만의 선진금융기법과 체계적 심사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리테일총괄본부

신상품 출시 및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2014년은 영업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유스마일론, 스타론, 굿닥터론 등은 물론 333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신상품 출시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과 함께 인천·광주지점 개설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14년 한 해는 비대면 채널 영업규제와 은행권 LTV 상향 등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신규시장 발굴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2015년 리테일총괄본부는 차별화된 신상품과 판매채널 다각화로 수익극대화 전략을 결과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업계 최초로 인터넷 전용 주택대출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중고차대출 신상품 출시를 위해 TFT도 이미 가동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고객을 위한 대출잔액 면제, 보이스피싱 보상, 금리우대 등 차별화된 멤버십 제도 도입으로 업계 1위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독보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 최다 영업망을 보유한 리딩뱅크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거점영업, 관계형 대출상품 출시로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상품과 고객관리 기법으로 SBI저축은행이 단 한계 더 높이 도약·성장 하는데 첨병이 될 것입니다.

리스크관리본부

업계 1위의 우량 자산 확보를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먼저 지난 2014년 저축은행 업계 1위에 걸맞은 우량자산 확보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신영업본부 및 IB본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부는 과거 부동산에 편중된 여신에서 벗어나, SBI저축은행 출범 후 최근 1~2년 사이에 기업 신용여신을 중심으로 신규여신이 급격히 증가한 데 적극 대응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여신심사를 통해 우량자산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2015년에는 심사프로세스 개선, 산업동향 전파, 각종 여신 기준안 마련 등 영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각종 한도관리와 철저한 여신심사로 자산건전성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심사역량 강화'와 '영업점과의 소통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부는 관리채권 및 담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 평가를 통해 당행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리스크관리부는 기존 평가프로세스의 개선과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부동산 시장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임직원들과 공유하여 시장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함은 물론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채권관리본부

채권회수 극대화를 통한
수익창출!

첫째, 채권관리사업부는 SBI저축은행의 재무적 지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부서의 목표달성 성패여부가 회사의 목표달성 성패여부를 결정짓는다'라는 결연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무수익 자산을 우량한 조건으로 조기 매각하여 회사의 경영목표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채권관리 자산축소에 따라 채권관리 조직을 은행 본연의 업무인 영업조직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NPL부에서는 '회수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SBI저축은행의 우량자산 확대와 이익창출에 앞장설 것입니다. 다양한 담보부 자산의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전문가와, 투자한 자산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우량한 NPL자산을 선별하여 매입하고 최적화된 채권관리 시스템과 지역별, 거점별 부동산 네트워크를 통해 조속한 채권회수와 회수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테일콜렉션부에서는 업계 1위의 위상에 걸맞은 콜렉션 업무의 신진화와 고도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 채권추심 거점을 삼성, 노원, 대전, 대구에 설치하여 연체 채권의 회수율 극대화를 추진 중이며, 2014년 10월 PDS를 구축, 연체로의 전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리테일 자산의 건전성 제고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건전성 제고와 금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정도경영 지원!

지난 한 해 임직원 모두의 각고의 노력과 감독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경영 정상화와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감사실은 SBI저축은행의 핵심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내부경영 및 조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감사자세로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조직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내부통제 시스템의 철저한 이행과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리스크 측정을 위한 선진 감사기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뢰받는 감사태도 유지를 위해 조직 및 직원 중심의 감사, 적발이 아닌 경영지도 및 업무 개선위주의 감사로 먼저 다가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 1위 저축은행으로서 품격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Best-Practice가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한 감사업무를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준법감시부

내부통제 강화로 신뢰 받는
 금융문화 정착!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향한 위상에 걸맞는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면밀하게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새로이 제정한 '임직원 윤리강령'과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재무건전성 제고와 고객권익 보호를 위해 수립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 Compliance 문화를 더욱 확고히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 **법규준수 프로그램 수립 및 관리**

▲ **일상업무 사전감사 강화**

▲ **법규준수 모니터링 강화**

▲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 **준법 교육 및 자문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신뢰회복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정착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5 경영목표달성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이 왔다. 겨울은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려 주기도 하고, 곧 다가올 봄을 위한 준비의 계절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추운 겨울, 봄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SBI저축은행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2015년 새로운 저축은행을 함께 만들어갈 8인의 셀프 소개를 담았다.

에디터 김보람

- QUESTION**
01. 자신을 사물과 비교해 소개해 주세요.
 02. 맡은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업무와 관련해 힘들거나 좋은 점이 있다면 함께 알려 주세요.
 03. 자신만의 장점 혹은 특급 매력 포인트를 소개해 주세요.
 04. SBI저축은행에 입사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05. SBI저축은행에 첫 출근했을 때 느낌과 각오는 어땠나요?
 06. SBI저축은행 입사 전, 후 달라진 것이 있나요?
 07. 부서 선배들에게 부탁하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8. SBI저축은행의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09. SBI저축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10. 2015년 신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NPL부 임영규 주임

02. NPL부에서 담보부 NPL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 임영규입니다. NPL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다양한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아 기쁩니다.
04. 4개의 은행이 하나가 되어, 발전하게 되는 SBI저축은행의 무한한 가능성에 입사를 결심했습니다. 입사 후 통합 선포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05. 다소 긴장하면서 출근했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자는 마음을 갖고 있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07. 부족한 것도 많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9. SBI저축은행에서 다양한 업무 습득하여, 그 경험을 토대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보시스템부 신동호 주임

- 02. 저는 정보시스템실 인프라기획팀에서 서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신동호입니다. 입사 후 전체적인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 05.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각오로 열심히 임했습니다.
- 06. 입사 전에는 서버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스템에는 각각의 용도가 있고 그 용도에 대한 흐름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해 관련 용어 및 해설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07. 가끔 덜렁대고 실수하는 저를 동생처럼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인프라기획팀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10. 개인적으로 주변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는 금융업무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금융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신영업3부 하준영 부장

- 01. 안녕하세요. '다산의 아이콘'(사물 맞나요?), 여신영업부 하준영입니다. 참고로 하준영 부장은 자녀가 3명입니다 ^^
- 05. 이곳이 나의 마지막 직장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 06. 아무래도 예전보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 07. 최근에 TV에서 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돌(?)들로 남았으면 합니다.
- 10.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새해에는 다들 건강해지시길... 저도 한층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BI저축은행이 한층 더 건강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일영업1부 김영민 사원

- 01. 평상시에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알람시계 같은 김영민입니다.
- 02. 온라인 배너광고 및 온라인 검색광고 등 비벌론의 온라인 마케팅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 05. 경력직으로 입사했지만, 신입사원의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부서 막내이기도 합니다.

- 06. 입사 전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족이었는데, 지금은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 09. 입사는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했으나, SBI저축은행에서 일하면서 금융 마케터로 거듭나는 게 꿈입니다.



- 01.** 초코파이처럼 정이 넘치는 양은순입니다. 이번에 채권관리1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02.** 채권관리부에서 전산업무와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요. 전산을 통한 자금관리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돈의 단위를 처리하는 일들은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실수할까 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해요. 그리고 비품들을 구매하거나, 부서분들 경비들을 관리하는데요, 한정된 예산에서 처리를 해야 하다 보니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마치 살림하는 주부가 된 듯한 느낌인데요, 아끼고 이것저것 관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채권관리1부 양은순 사원

- 07.** 매일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항상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다들 너무 친절하시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고 배워서 믿을 수 있는 직원으로 성장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 08.** SBI저축은행의 지식인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료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 09.**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게 꿈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 배워야 할 게 많더라고요. 관련 자격증들도 따면서 성취감도 높이고, 제 자리를 찾아가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SBI저축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총무부 박상준 대리

- 01.** 야구공처럼 때로는 변화구도 직구도 될 수 있는 유연한 박상준입니다. 이번에 총무부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 02.** 총무부에서 렌탈, 보험, 자산, 인장, 복리후생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분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04.** 저축은행 업계 자산규모 1위의 선두업체라 생각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입사를 결심했습니다.
- 06.** 기존에는 지방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했는데, SBI저축은행에 입사하여 매일 15개월 딸아이를 볼 수 있어 좋습니다.
- 07.** 업무 노하우나 좋은 지혜가 있으시면 조금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08.** 임직원 분들의 힘이 될 수 있는 SBI저축은행의 비타민이 되고 싶습니다.
- 10.** 최대한 빨리 업무를 습득하여 2015년부터는 회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 자격증을 1개라도 취득하고 싶습니다.





인천지점 윤상아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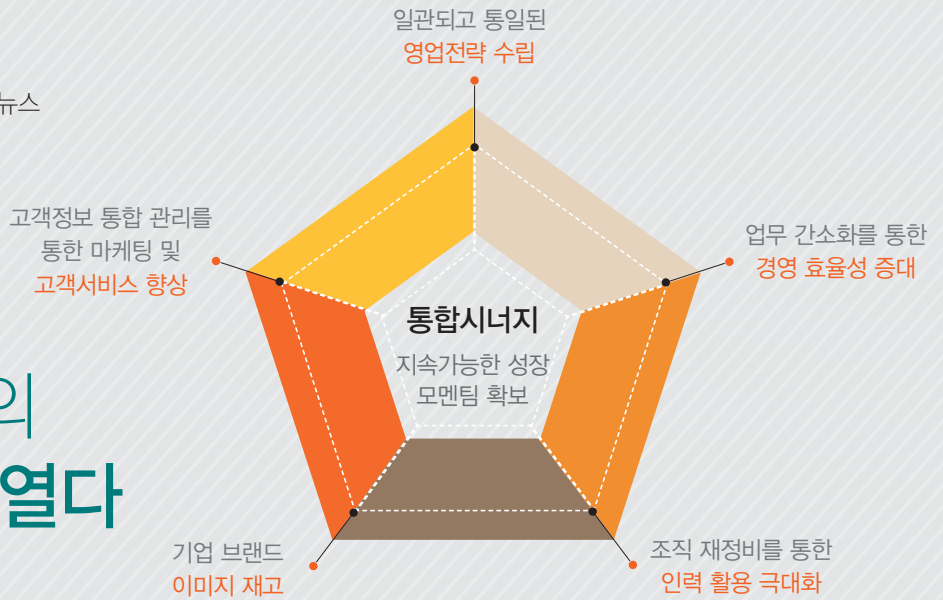
1. 저는 시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계는 묵묵히 꾸준히 제 할 일을 해내고 다른 사람들도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 주듯 저도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올해 경력적으로 입사하여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SBI저축은행의 새내기입니다. 주 업무는 창구 수신업무를 맡고 있고, 공교롭게도 신설지점인 인천에 발령받게 되어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점 오픈 멤버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3.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부딪혀야 할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자”라는 저의 긍정적인 생활신조가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7. 아직은 어색하고 모르는 업무와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업무 습득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통해 열심히 일하려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10. 매년 실패했던 신년맞이 다이어트가 개인적인 신년계획이고, 은행에서의 계획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창구에서 하는 업무 외에도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금융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올림픽지점 김정주 사원

01. 동글동글 공 같은 사람 김정주입니다. 모난 구석이 없어서 어느 조직에서든 사람들과 잘 융화되며 친화력이 좋습니다.
02. 올림픽지점에서 수신 상품과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고객들과 얘기를 하면서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서 가입하고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03.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널 만큼 저는 모든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트 2번 이상 확인을 통해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4. 대한민국 1등 저축은행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SBI저축은행에 입사했습니다. 맡은 바 업무에 책임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06. 지점 업무를 하면서 금리나 주가지수에 민감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매일 주가지수나 금리 동향 기사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07. SBI가 1등 저축은행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해요. 모두 화이팅!!!
09. SBI저축은행 PB로 성장해서 전문적인 금융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통합 SBI저축은행, 새로운 도약의 첫 걸음



SBI 저축은행은 지난 11월 1일 1,2,3,4 계열 저축은행과의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짓고 통합 SBI저축은행으로 공식 출범했다. 자산규모 3조 8천억 원, BIS비율 11.45%로 명실공히 저축은행 업계 1위 우량 저축은행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주주인 글로벌금융그룹 SBI홀딩스가 2013년 3월 경영권을 인수하고, 총 1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와 조직개편으로 경영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한 이후 1년 6개월만에 이룩한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김종욱 대표는 “은행 전체의 외적인 통합과 내적인 결속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열 저축은행 통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선진금융으로 차별화된 서민금융회사로 발돋움할 것



SBI 저축은행은 이번 합병을 기반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중심의 서민금융회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SBI저축은행의 모회사인 SBI홀딩스는 인터넷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전세계 20여개 국, 213개 관계회사를 거느린 인터넷 중심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다양한 금융산업 네트워크와 축적된 금융기법, 노하우를 저축은행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기반의 예·적금, 보험, 개인신용대출, 지역밀착형 소호사업자 대출, 중소기업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업계 선두주자로서 금융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의존하고 있던 과거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하고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금융 시장을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및 중·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저금리 신상품 개발을 통해 관계형 금융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객신뢰 회복’, ‘책임경영 실현’ 이 최우선



SBI 저축은행은 앞으로도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통해 고객신뢰 회복하기 위한 경영체제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 경영 투명성 제고
- 🏠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 🏠 정도영업
- 🏠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
- 🏠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대출금리체계 개선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 🏠 소비자 보호 강화

김종욱 대표이사는 “SBI저축은행은 대주주인 SBI그룹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1조 3천억 원 대규모의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한 것은 대주주의 책임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책임경영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선포식
이모저모

▼ 김종욱 대표



2014년 11월 1일 더케이호텔(舊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김종욱 SBI저축은행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4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법인 통합을 기념하고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통합 선포식 및 한마음 결의대회>을 가졌다.



▲ 임직원 단결 퍼포먼스 시작을 알리는 김종욱 대표



▲ 한마음 결의대회 <어벤져스>팀의 퍼포먼스



▲ 감동을 선사한 '렛잇비' 개그팀



▲ SBI밴드의 콘서트 현장



▲ Be the One 단결 퍼포먼스

▲ "대표님께서 나눠 주신 음식을 먹으니 더욱 맛있어요~"



▲ "오늘은 내가 기타리스트~" 임진구 전무이사

1 인천·광주지점 신규 개설로 저축은행 최다 영업망 구축



지난해 11월 12일 김종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점 신규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SBI 저축은행은 법인 통합을 기점으로 신규 고객 확대와 지역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과 12일에 인천지점과 광주지점을 신규로 오픈했다. 이로써 SBI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최다 규모인 전국 총 20개 영업점을 확보하게 됐다.

금번 통합 이후 신규 지점 개설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다양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과 금융이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지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에 위치
- 광주지점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4번지에 위치

2 통합기념 예적금 조기 완판 기록



“3시간을 기다려서 간신히 적금에 가입했어요”
 지난 인천지점을 방문하여 특판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한 말이다. 통합 법인 출범을 기념하여 실시한 예적금 특판이 성황리에 조기 완판됐다. 이는 상품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

의 예상보다도 빠른 조기 마감이었다. 기본금리를 0.4%p 인상하여 4.6%, 1천억 원 한도로 판매한 정기적금의 경우 8영업일 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기본금리 0.2%p 인상한 2.8%, 1천억 원 한도로 판매한 정기예금은 7영업일만에 한도가 소진되는 등 20~30대 젊은 직장인 신규 고객층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조기 판매 완료됐다.

3 2014 대졸신입 및 신입텔러 공채 실시



신입텔러 최종합격자들이 지난 2014년 12월 2일부터 2주간 신입공채 입문 연수를 받았다

금융업계 채용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SBI저축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 11월 실시한 <2014 대졸신입공채>와 <2014 신입텔러공채>를 통해 총 50여 명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졸신입공채에는 3,750명이 지원하여 1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저축은행 업황 회복과 법인 통합으로 대외 위상이 상승하면서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특히 대졸 신입사원 지원자 중 해외파와 국내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SBI저축은행 인재상의 최고 가치인 윤리적 가치관을 겸비한 솔선수범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면접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다.

4 놀라운 혜택! 'SBI 패밀리 멤버스' 서비스 오픈



SBI Family Members

현명한 금융생활 파트너
 회원 전용 멤버십 혜택

대출잔액 면제
 추가대출 금리 우대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대출한도 안내
 경품행사 자동응모

SBI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고객을 위한 특별한 금융 서비스 'SBI 패밀리 멤버스'를 출시했다. 회원 전용 멤버십 서비스인 'SBI 패밀리 멤버스'는 저축은행의 고객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금융 정보와 금리 우대, 대출 잔액 면제 서비스 등 신용대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대출 잔액 면제 서비스'는 신용대출 고객이 불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로 대출금 상환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대출금 잔액을 전액 면제해 주는 서비스다. 금융을 넘어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SBI저축은행만의 특별한 혜택이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상 외에 별도로 최고 200만 원 한도까지 보상해 준다. 이외에도 추가 대출시 최대 5%p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대출한도 안내 서비스와 각종 경품행사 등도 혜택도 주어진다.

5 허윤경 프로 '2014 KLPGA 2회 우승, 상금랭킹 2위'로 시즌 마감



KLPGA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우승

2014 KLPGA의 우수한 성적으로 회사 브랜드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와 특별격려금을 전달했다

미소천사 라는 닉네임을 가진 허윤경 프로는 호쾌한 장타로 올해 KLPGA 투어를 데뷔 후 최고의 성적으로 마감했다.

올 시즌 총 23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2회, 준우승 3회, 총 상금 2위, 톱텐 피니시율 2위(60%), 대상포인트 3위, 평균타수 3위 등 각 부분 상위권에 오르며 KLPGA 톱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성적만큼 인기도 최고다. '허윤경 프로 골프사랑 팬클럽'은 대회 때마다 피켓을 들고 열띤 응원전을 펼치기로 유명하다.

허윤경 프로의 선행도 화제다. 허윤경 프로는 민간 구호단체 월드비전을 통해 3명의 에티오피아 어린이와 자매결연을 맺어 후원하고 있다. 또 물 부족 국가에 우물을 팔 수 있는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

화려한 성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허윤경 프로는 "SBI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보내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더 멋진 활약을 하겠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다.

6 SBI저축은행 공식 Facebook, 카카오톡 스토리 공식 계정 오픈



SBI 저축은행은 금융을 넘어 감성적인 일상의 공감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SNS 공식 계정을 오픈했다.

공식 오픈한 SNS를 통해 저축은행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부족한 저축은행의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대사회 '직장인의 삶'을 주제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여 SNS를 통해 현실감 있게 그려낸다는 계획이다.

SNS를 기획한 홍보부 담당자는 "SNS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감'이다."며, "소소하지만 감동이 있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SNS 운영을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행복의 실마리를 찾고, 삶의 비타민과 같이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웃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SBI저축은행의 사무환경 업그레이드 大 프로젝트!



[센터원 전경]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센터원은 2호선 을지로입구 역에 위치한 금융가 중심의 랜드마크다. 규모면 규모, 시설이면 시설.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축한 센터원에서 SBI저축은행은 또 어떤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줄까? 앞으로 SBI저축은행의 활약이 펼쳐질 새 일터, 센터원 본사를 미리 공개한다.

새 일터 '센터원', 업무공간에 유니크를 더하다

1 이전 일정이 궁금합니다



2 층별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동관 9층 : 리셉션, 라운지, 전략재무본부, 경영지원본부
- 동관 10층 : 교육장, 리스크관리본부, 채권관리본부, IB본부, 여성영업본부
- 동관 11층 : 교육장, 리테일총괄본부, 준법감시부, 감사실

3 사무공간 설계는 어디에 중점을 뒀나요?

쾌적하고 개방적인 공간 연출 "Identity (Openess, Light)"

유니크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을 기대합니다.

: 층당 약 430평의 대형공간을 감당한 오픈형 사무실 구조/청계천과 남산을 등지고 있는 입지적 요건을 활용한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여 밝은 분위기를 연출

커뮤니케이션 기능 공간 활용

"Diversity of Communication Unit"

공간과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새로운 워크 스타일을 만들어 갑니다.

: 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무실내 어디서든 간단한 회의와 업무 미팅이 가능한 구조 구현 및 가구 배치

유연한 공간 설계 "flexibility"

공간의 유연성을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 내외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공간 구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자, 그럼 이제는 SBI저축은행 사무실로 들어가 볼까요?

4 새로운 사무공간이 궁금합니다

통합방법 시스템



센터원 빌딩은 철저한 보안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통합방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스피드 게이트 통과(인가된 출입카드만 인식) ▶ E/V탑승(E/V앞의 컨트롤 패드에 9~11층을 누른 후 출입카드를 터치, 화면에 지정되는 E/V(A~E호기를 탑승) ▶ 9~11층 E/V홀 로비의 양쪽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사무공간으로 진입하면 각 부서별 보안 출입문을 한 번 더 통과해야 내부 이동 가능)

새로운 사무공간

- ▼ 9층 리셉션 : 인포데스크의 역할 수행
- ▼ 9층 라운지 : 대방객 대기/응접 기능을 갖춘 임직원 휴식 공간



- ▼ 미팅룸 : 외부 고객 전용 미팅룸으로 10층, 11층은 외부고객의 출입제한



- ▼ 교육장 : 교육장은 10층과 11층에 각각 위치하며, 이동식 벽체를 이용해 프로젝트 및 중형 회의실로의 확장 가능



- ▼ 포커스룸 : 각 층에 마련된 1인 전용실로 집중근무나 개인용무를 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

- ▼ 회의공간 : 층당 중,소(2인 회의실 포함) 회의실을 10곳 이상 배치



- ▼ 대회의실 : 최소 40인 이상 동시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로 동시통역, 화상,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회의실



Mini Interview

사옥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총무부 김준태 대리

저축은행 업계 1위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사무환경을 축하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입지한 랜드마크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직원간 언제 어디서든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

▲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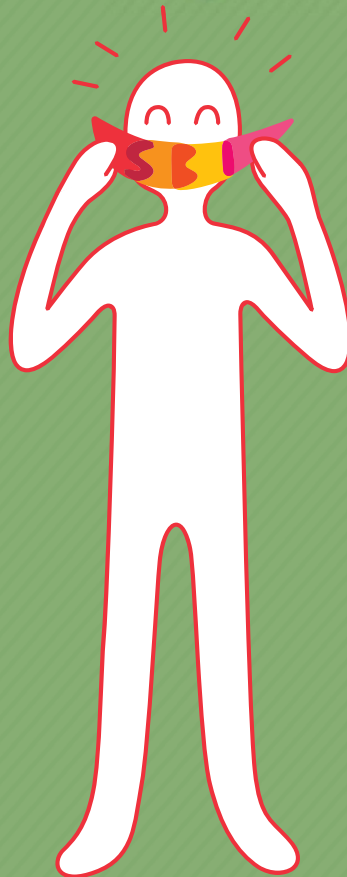
▲ 자연친화적인 마감소재를 선택하여 내 집 같이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임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part. **II**

소통하는
SBI





Communication with SBI



24

나는 SBI인이다 •

28

부서탐방 •

36

힐링타임 •

40

SBI 수사대 •

42

고맙습니다 •



나는 SBI인이다

정규직 신입 텔러, 금융人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은 여고생



주슬기 백혜리 하유리 장선희 김정은 유난희 윤소진 안다솔 이도희 현희지 이공주 권지혜
(공채3기) (공채2기)

뜨겁게 내딛던
첫걸음을 위한
선·후배의 만남

Bravo,
Your Life

에디터 김보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공채를 통해 선발된 SBI저축은행 신입 텔러다. 고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은행의 얼굴이자 업계 1위를 향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그들의 사회 첫 발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용기를 줄 공채2기, 3기 선배 텔러 두 명과 함께.



교육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냈던 신입 텔러들에게 막연하기만 했던 그들의 궁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릴 시간을 마련했다. 그간 교육을 통해 텔러의 서비스와 업무에 대해 배운 그들이지만 현장에 대한 막연함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줄지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을 마주한 선배들의 얼굴에는 언니 미소가 그려졌다.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맛있는 파스타를 앞에 둔 선배들을 만난 후배들의 얼굴은 더욱 밝다. 후배들의 넘쳐나는 질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답해 주는 선배, 여고시절로 돌아간 듯 조잘거리는 그들의 시간에 동석했다.

Q 업무에 도움이 되는 선배님들만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A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지금도 그렇지만 신입에겐 메모하는 습관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메모'라고 하니까 사회 초년생으로 당연히 습관으로 만들어야겠죠?

Q 실수라고 할까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A 조심해야 할 것이라... 다른 업무도 그렇겠지만 은행이라는 특성상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복된 실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혼자 수습하려는 생각은 위험해요.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말을 조심할 것! '말'이라는 것은 잘못 전달되기 쉬우니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말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죠.

Q 궁금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을 텐데, 질문 많은 후배. 미움받지 않을까요?

A 질문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의욕이 있는 만큼 궁금한 것도 많을 테니까. 선배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다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유의해야겠죠. 어려워하지 말고 궁금한 것들은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 보세요. 그래야 선배들의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Q 신입사원으로서 지점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A 처음부터 혼자서 업무를 맡아 진행하지는 않아요. 교육 기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선배들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역할부터 시작할 텐데 창구에 계신 선배들을 위해 서류를 챙겨 드리거나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찍 출근해서 업무와 관련된 사무기기들의 전원을 켜놓으면 예뻐받는 신입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에서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세요?

A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옆에 있는 동기들이 바로 그 방법인데요. 저희 역시 동기 모임이 있어요. 동기 모임에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요. 다른 건 없고, 그저 대화하는 건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동기들도 같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에게 격려를 하기도 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기도 하고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기가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옆에 있는 동기들과 잘 소통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린답니다.





Q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텔러들에게 보람된 순간이라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고객님들에게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받거나 지점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했을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칭찬이나 인사를 전하시는 고객님들께서도 계신데 가끔 박카스를 하나 슬그머니 주시고 수고하라는 말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하루 피로가 싹 가실 만큼 기분이 좋아져요. 또 업무 성과가 좋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지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됩니다.

Q 사회 초년생인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먼저 최종 입사를 축하합니다. 취업이 힘들다는 이런 시기에 SBI저축은행에서 선후배로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취업의 바늘구멍을 힘들게 통과한 만큼 많이 얻어 가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동기를 서로 의지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하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속 지점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선배들을 믿고 잘 따르세요. 저 역시 지금도 선배들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이지만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답이 보일 거예요.



궁금한 것이 산더미였던 때가 다시 떠올랐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처음 지점의 문을 열고 들어섰던 날이 엇그제 같이 생생하다. 노련한 텔러의 모습으로 후배들 앞에 선 삼성지점 안다솔 사원, 목동지점 윤소진 사원은 이제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올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Bravo, Your Life!



'고객의 마음을 연구하는 리테일영업1부'
 여기저기 울리는 고객님의 전화벨 소리, 시시각각 이뤄지는 영업 실적 보고,
 오늘도 부서장의 긴급대책회의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드라마 '미생' 영업3팀 보다 더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리테일영업1부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자

**리테일영업1부의
 하루를 공개합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유대리님~ 어제 소개팅
 잘 됐나봐요?

현재시간 08:00 AM
 언제나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우리는 '아침형 인간'

지난주 영업실적이 이게 뭐지?
 도대체 어디가 문제야?

업계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획기적인 프로모션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허대리는
 그걸 언제 준비했지

아침식사는 걸러도 회의는 필수

역시 부장님 없이 회의하니
 이렇게 평화로울수가 ㅋㅋ

해장해야 하는데 ㅜ.ㅜ



애가 셋인데...
 이번 신년회는 뭘로 빠지나?
 맞다~부장님도 셋이지 ㅜ.ㅜ

공포의
 주간회의

전체 주간회의 전에
 부서 신년회식 대책회의
 부터 하겠습니다.ㅋㅋㅋ

오늘은 금요일.
 기획팀, 핫살론, 콜뱅, 온라인&오프라인 영업팀 전체 주간회의가 있는 날



'따르릉~ 따르릉~'

"네~고객님 바로 확인 후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드리는 SBI저축은행입니다."



점심 잘 먹었어?
 오늘 생일파티 이벤트하고 선물은 멀로 할까?

일할 땐 호랑이 처럼 무섭지만,
 부서원의 생일파티 까지 직접 챙기시는 인자한 부장님



잘 돼어가?
 농땡이 부리고 있는건
 아니지?

왜 그러세요~~
 윤대리님이 어제 저 버리고 일
 짝가셔서 혼자 X고생했어요



군 조교 출신인 우부장은
 일할 땐 언제나 FM이다.
 부장님의 별명은
 극비중에 극비다

이걸 이제서야 보고
 하는거야?
 정신 똑바로 안차리지?
 으르렁~으르렁~

에~휴우~~
 어제 퇴근할 때 시키
 시구 회식 데려가셨
 잤어요 T.T



할일 끝~웃
 퇴근해도 되겠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꼭 퇴근 직전에
 분위기 안좋다니깐..
 예고~살금살금...
 휘리릭~



完生

완생을 위해 오늘도 달리는 리테일영업1부 4인방



우희준 부장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 한탄하기보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감이면 감, 실력이면 실력! 누구나 인정하는 이 시대 진정한 워커홀릭 우희준 부장.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돌아보며 그저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부서원들이 고맙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는 데일 카네기의 말을 기억하는 그.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없으니 2015년 리테일영업1부 모두 뚝뚝 뭉쳐 잘 헤쳐나가 기록을 만들어 가자는 파이팅 넘치는 메시지를 전했다.

2001년 입사 후 14년간 상품개발 및 기획, 대출 영업, 채권추심까지 개인신용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도 개인신용대출 신규 영업(바빌론, 햇살론)을 담당하고 있는 우희준 부장은 영업은 숫자로 말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회의시간에 자주하는 이야기지만 영업부서는 숫자로 울고 웃는 부서이면서 항상 ‘O’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O’에서 100을 만드는 쾌감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고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 부탁드립니다.”

박경민 과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무뚝뚝해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박경민 과장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누구에게 참 쉬운 말 한마디인데, 왜 그리 어려운지 부서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했던 2014년이 후회스럽다. 그래서인지 2015년에는 서로 다독이며 격려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의 다짐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세 자녀의 아버지인 박경민 과장은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가 그러하듯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후배의 내일을 생각한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성취하시길 바라요. 각 부서의 사업목표도 반드시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SBI저축은행 파이팅!”



완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바둑돌 ‘미생’처럼 금융인으로서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리테일영업1부를 만났다. 미생이 완생으로 거듭나듯이 SBI저축은행을 업계 최고이자 ‘완생’으로 만들기 위해 뛰는 사람들, 리테일영업1부 4인방을 소개한다.



윤진원 대리

“인생사, 다 웃으며 살면 그만이지”

아파도 웃고, 힘들어도 농담한다. 리테일영업1부의 분위기 메이커 윤진원 대리는 웃으며 사는 게 인생의 희망이자 목표다. 웃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딱딱하겠는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웃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일 게다.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될 때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선물,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지곤 하죠. 하지만 언제부 터인가 새로운 해는 처음 겪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일상이 되어 새로움에 대해 무뎠고, 다짐도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새로운 목표와 다짐으로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지는 SBI저축은행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리나 주임

“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인지 중용 23장의 문구가 뇌리에 박혔다. 임리나 주임은 주변을, 상황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작은 일부터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성스러워야 한다는 말을 기억한다. 2014년 매일, 매달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리테일영업1부가 자랑스러운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하루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부서원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우리 또 열심히 달려봐요. 같이, 계속! 지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칠 때마다 함께 시작했던 그 ‘열정’을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리테일영업1부가 되길 바랍니다.”



[유쾌상쾌 인천지점]

인천 금융의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SBI저축은행 통합과 함께 인천에 첫발을 내디딘 인천지점은 패션, 문화의 중심지로 상권이 발달한 구 월동에 자리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인천 금융의 중심이 되겠다는 SBI저축은행의 포부를 가늠케 한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인천'이기에 SBI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최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자부하는 인천지점 직원들을 만났다.





윤주인 지점장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
으로 직원들을 격려하
고 독려하는 이 시대
의 윤그래



정보라 사원
성격은 쾌활! 통은 큼직큼
직!, 고객님들께 권유도 크
게! 선물도 크게! 왕손이
라 불러다오~



이연주 주임
우렁찬 목소리로 모든
고객을 압도하는 인천
지점 마이크PB.
뮤지컬배우를 꿈꿨던
그녀는 2015년 5월 9
일 결혼을 앞두고 있
습니다!



김도연 사원
모든 업무에 박학다식
한 그녀는 자칭 타칭
'인천지점 김태희'



양준석 주임
애처가인 듯 애처가 아닌
애처가 같은 가짜 애처가.
와이프 생일에 깜박하고
야근을 하는 불상사가 있
었습니다.

윤상아 사원
인천 지리를 꿰뚫고 있어 지점
위치안내 담당이며, 직원들의 맛
집 가이드로도 활약 중인 인천
네비게이션. 야근으로 인해 아직
큰 활약을 보여 주지 못해 아쉬
워하며 기회를 노리는 중!

각 지점에서 신속성, 전문성, CS마인드를 모두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인천지점에 모였다. 직원과 고객이 모두 행복한 지점을 만드는 것이 2015년 목표라는 이들은 SBI저축은행을 인천 금융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윤주인 지점장은 “수승화강!!!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꿈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발 한발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인천지점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인천지점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박정훈 고객님(30대. 회사원)

“취직을 하고 저축도 그렇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방문했습니다. 직장 근처라 출퇴근하면서 SBI저축은행을 눈여겨 봤는데, 계획 세워서 잘 이용하면 시중은행보다 저에게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친절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안내를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직장 근처니 자주 방문하면서 앞으로 자산관리 잘 해야겠어요.”



[무한긍정 광주지점]

광주를 밝히는 금융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최다 영업점의 SBI저축은행. 업계 1위를 굳건히 하기 위한 새로운 기록을 써나갈 광주지점을 다녀왔다. 편안하고 믿음직한 SBI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펼쳐나갈 새로운 지점의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전라남도 핵심도시 광주에서도 예술의 거리와 광주의 명동 '충장로'가 있는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에 위치한 광주지점. 지점 중 가장 넓은 영업공간을 자랑하는 이곳은 2천여 개가 넘는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금남로 대로변에 위치한 만큼 지역에 힘을 주는 금융의 등불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광주지점 직원들을 만났다.





신중하 지점장
지점을 총괄하는 유쾌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긍정 에너지 팍팍!



이석 대리
상호간의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늘도 마신다' 광주지점 주당



서은경 주임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친절한 그녀



윤수진 사원
묘한 매력으로 고객도 사로잡고 알코올도 사로잡는 알콜 플러스



이명준 청경
지점의 어떤 일이든 척척, 지점을 완벽 케어하는 만능박사

나선유 주임
업무처리의 해결박사, 분위기를 주도하는 지점 수다쟁이



김아람 사원
지점 분위기 메이커이자 톡톡 튀는 비타민, 아로미

광주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진 직원들이 뭉쳤다.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손발이 척척, 잘 맞는 광주지점은 팀워크 하나는 전국 최고를 자부한다. 2015년 광주지역 영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수익을 실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들은 SBI저축은행을 힘차게 움직이는 동력과 같다. 신중하 지점장은 “일출을 보기 위해 바닷가, 산 정상에서 기다리다 보면 해가 뜨기 바로 전이 가장 춥고 어둡죠. 지금 우리는 깊은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전진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멀리 가려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는 말처럼 모두 손잡고 힘차게 달려 봅시다.”라며 모두 함께하는 힘찬 도약을 당부했다

정미영 고객님(40대. 주부)



“요즘같이 은행 이자도 낮을 때 주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돼요~ 버스에서 지점 밖에 붙어있는 특판에 관심이 가서 방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상담해보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저에게는 어떤 상품이 더 좋은지 설명해주니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힐링 선물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담아**
너에게
주고 싶어



정보시스템실 이종석 실장
명동지점 김혜진 주임
리테일영업2부 여성환 주임



정보시스템실 이종석 실장



아빠는 언제나 바쁘다.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리는 뒷모습으로 기억되는 아빠라는 존재는 늘 그랬다. 부부는 어떨까.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했지만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는 과정은 기적과도 같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아빠'와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만들었다.



에디터 김보람

연말연시면 걱정부터 앞선다. 어떤 선물을 해야 고마운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가족들에게 말로 전하기 쑥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말이다. 그런 SBI저축은행 직원들을 위해 고민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평소에는 만질 기회가 적은 '꽃'을 이용해 직접 만드는 선물은 어떨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고민이 가득한 이들을 대신해 정보시스템부 이종석 실장과 여성환, 김혜진 주임 사내 부부가 나섰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플라워 센터피스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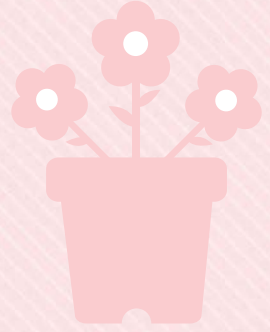
어색하지만 낯설지 않은 꽃

“안녕하세요.” 여성환, 김혜진 주임이 인사를 건네며 들어왔다. 평소에 꽃다발을 사긴 하지만 직접 만들어본 적은 없다는 이들은 사내 부부다.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직접 만든다니 기대가 되네요. 오늘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내에서도 소문난 잉꼬부부는 역시 밖에서도 티가 난다. 시종일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는 부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샘이 날정도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낸 사람은 다름아닌 정보시스템부 이종석 실장이다. 잘 부탁한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던 그는 체험이 진행되는 내내 주변 사람들의 찬사를 들었다. 꼼꼼한 성격과 거침없는 추진력은 플라워 센터피스 제작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사내부부 김혜진 & 여성환 주임



손길 가득 담은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이 콘셉트인 이번 체험은 그야말로 달달한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이었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질문에 “선물해야죠.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편백나무와 비단향, 그리고 오가닉 액세서리로 연말연시 건강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할 것 같아요. 서로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집에 예쁘게 장식하려고요.” 부부는 다했다 했던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며 만들고 있다는 여성환, 김혜진 주임은 벌써 집안 어디에 장식할지 고민하는 눈치다.

이종석 실장의 선물은 이미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바로 통합선포식에서 SBI저축은행 직원들의 마음을 훔쳐 간 그녀, 딸 이한솔 양이다. 선포식에서 영상편지를 통해 아빠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 딸을 보며 SBI저축은행 임직원 사이에서는 ‘저런 딸이면 10명을 낳아도 좋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 딸을 생각하며 한 송이 한 송이 꼼꼼하게 만들어가는 그의 손길에는 사랑이 가득 묻어났다.

한 시간 남짓, 신중하게 꽃을 꽃으며 완성된 플라워 센터피스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말연시를 더욱 따뜻하게 보낸다는 것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행복이다. 딸이 더욱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아내와 남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그 행복은 더욱 커진다.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낸 세 사람처럼.





아빠도 한슬이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해!

이종석 실장님은 외동딸 이한슬 양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종석 실장님의 외동딸 이한슬 양 영상편지」

“아빠 안녕! 한슬이야.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고생하는 거 나도 충분히 알고 있어.

아빠 요새 너무 말랐어요. 보약 한 채 드셔야겠어요.

아빠 고생하는 만큼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깐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꼭 효강시켜 드릴게요.

아빠, 항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SBI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들!

저희 아빠 드디어 전자담배 샀어요. 금연할 수 있게 꼭 옆에서 도와 주세요.

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꼭 도와 주세요 여러분!

아빠 항상 사랑해요”

- 이한슬 -

우리 신혼집에 사랑이 찾아왔어요!

여성환, 김혜진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생생함이 느껴지는 편백나무와 장미, 솔방울 등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즐거움이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덕분에 집안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 운기로 이번 겨울 잘 보내겠습니다. ^^

여성환 주임

평상시에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일 플로리스트가 되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설렘이요. 향긋한 꽃내음 속에서 마음과 몸이 정화되었고, 남편과 이종석 실장님이 함께여서 더 즐겁게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꾸며 놓으니 볼 때마다 힐링이 됩니다. 새로운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진 주임



SBI INFOGRAPHICS

SBI 인적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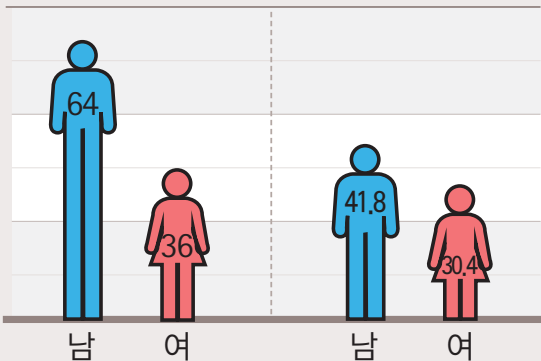
그것이 알고 싶다

옆자리 김대리, 아래층 박주임이 결혼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금, 동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직원들의 모든 것을 한눈에 쏙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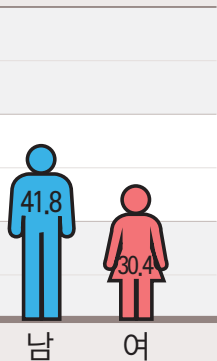


우리 부서는 남자 직원들만 우글우글하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SBI저축은행 직원들은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남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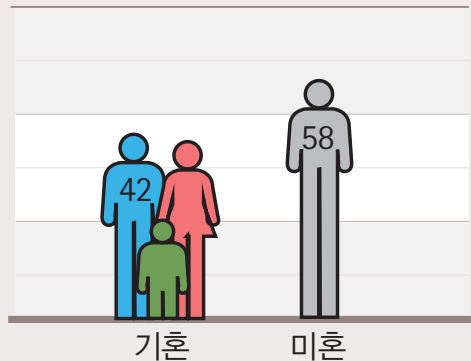


남녀평균나이(세)



결혼을 해야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데, 옆자리 김대리님이 승승장구 하는 이유도 기혼자라서 그런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안정적인 기혼자와 자유로운 영혼 미혼자의 비율!

혼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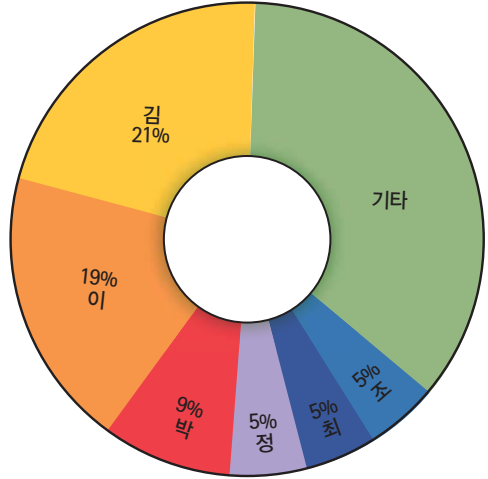




성(姓) 분포도

Q

여기도 김부장님, 저기도 김부장님. 성씨 중 가장 쉽게 만나는 김(金) 씨. 그래서 궁금합니다. SBI저축은행에서 가장 많은 성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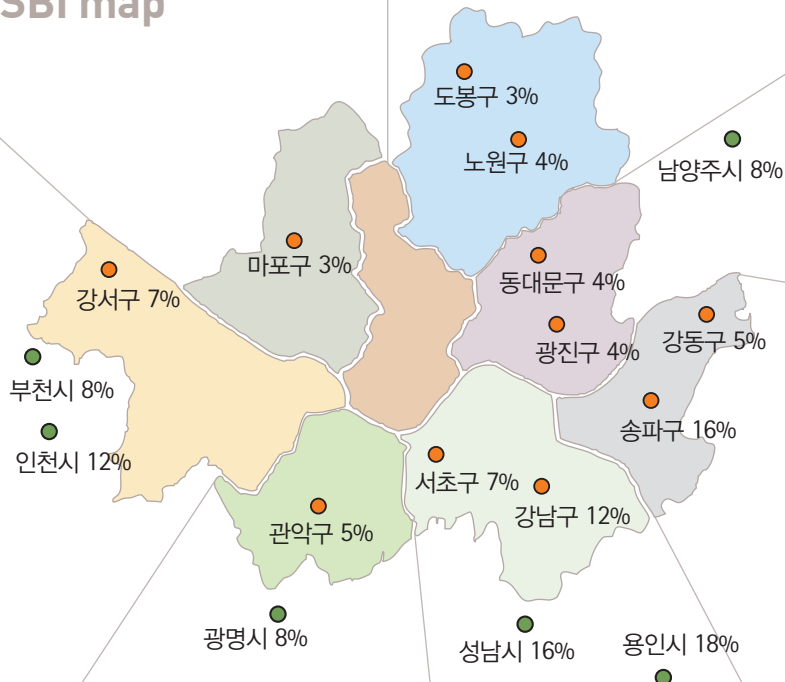


▶▶ 기타 내용

임 4%	윤 2%	장 2%
안 3%	강 2%	전 2%
신 3%	홍 2%	오 2%
유 2%	허 2%	서 2%
송 2%	양 2%	문 2%
한 2%	고 2%	권 1%

거주 분포도

SBI map



오늘도 두 시간 출근 대장정을 마친 정과장. 15분이면 후다닥 회사까지 도착하는 송대리가 마냥 부럽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SBI저축은행 직원들은 어디에 살까요? (수도권 기준 3% 이상)

서울은 강북보다 강남에!
경기도는 신도시 지역에!





청원경찰님 대단하십니다



목동지점 정경민 청경

저는 신한은행 목동하이퍼리온지점의 청원경찰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지점에 매일 오시는 고객께서 객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눈이 돌아가고, 팔이 말리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현장에 계시던 SBI저축은행 청원경찰이 쓰러진 고객님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여 후송을 보냈습니다. 같은 청원경찰로 매일 얼굴을 보며 담소를 나누는 정도의 친분만 있었지 성함을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먼저 나서서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한 생명을 살린 청원경찰을 칭찬합니다.

후송된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전화가 와서 자세한 상황설명을 하고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니 의식이 깨어났다고 하더군요.

모두 SBI저축은행 청원경찰의 기지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4.11.11 이인규 신한은행 청원경찰





친절한 E-mail 상담에 감동했어요

삼성본점 강현정 사원

처음 상담하고 일 처리할 때는 “신입사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것저것 한꺼번에 설명해주길래 처음에는 답답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해결해 주시길래 엄청 친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리과정도 얘기해주시고 혹시나 하는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할 서류들도 많았는데 대강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체크해주시고, 고객 입장에서 얘기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은행이 이분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들러서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장점이 많고, 기본적인 친절과 고객입장에서의 신속한 일 처리까지 완벽합니다.

2014. 8. 26 김기훈 고객님



친절함에 감사드려요

리테일영업1부 추유주 상담사

대출서류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꾸 전화 드려 귀찮게 했는데 상담사님께서 계속 밝은 목소리로 응대해주시고 이것저것 전화해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밥 한끼 사드리고 싶네요~ 상담사 추유주씨 감사해요. 저의 작은 칭찬이 상담사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직원에 대한 격려도 꼭 부탁드립니다.

2014. 9. 18 김범준 고객님



수내지점 직원을 추천합니다

수내지점 조은혜 사원

오늘 방문한 수내지점 직원들의 친절함에 칭찬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오늘 아침 ‘목돈 만들기’라는 부푼 꿈을 안고 400만원 적금 개설하고자 수내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조은혜 사원께 계좌 개설과 상품 설명을 들었어요. 궁금한 내용이 꽤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똑같은 질문에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줘서 원하는 상품으로 무사히 적금 개설하고 왔습니다. 친절한 수내지점 조은혜 사원을 추천합니다.

2014. 11.12 김흥기 고객님



part. **III**

함께하는
SBI



SBI 저축은행

SBI together



46	특집편
47	금융가이드
48	해외직구
50	강북 멋쟁이들
52	추천합니다
54	SBI Quiz / 다음호 안내
55	광고(Facebook 안내)

2015 생활가이드

새해니까 더 꼼꼼하게!
알찬 2015년을 보내기 위한 ‘희망’ 가이드

●● 에디터 김보람

주목! 달라지는 생활 제도

또 새해가 밝았다. 2014년 한 해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하루 이틀 시간 가는 것이 무더질 만도 할 텐데... ‘새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은 언제나 새롭다.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챙겨야 할 것도, 바뀌는 것도 부지기수. 그래서 준비했다. 더 꼼꼼하고 알찬 2015년을 위한 가이드.

1.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주목

2015년 1월부터 담배가격 2,000원씩 인상된다. 또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전자담배 포함)이 실시된다. 3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갖고, 4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의 과태료는 10만원,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되니 강력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시 구간 쓰레기봉투값 최저수준 통일

지역마다 달랐던 쓰레기봉투 가격이 통일된다. 앞으로는 서울시 어디에서나 20L 장당 437원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36~56% 단계별 인상을 계획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2015년엔 437원, 2017년에는 492원으로 해마다 오를 예정이다.

3.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법이 강화된다. 1차 거부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과 일반택시 사업자는 60일, 개인택시 사업자는 90일 운행정지를. 2차 거부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40만원에 30일 자격정지와 일반택시 사업자는 감차명령, 개인택시 사업자는 180일 운행정지. 3차 거부시 운전자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취소, 또한 일반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 밖에도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4. 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최소적립 요건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카드사별로 특정 포인트 이상 적립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제한 조건이 없어진다. 또한, 신용카드 탈퇴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 기간 유지된다.

5. 더 유리해지는 연말정산

2015년도 연말정산 주요 지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최대 40%(단, 총 급여액의 25% 사용, 공제 한도는 500만원)가 될 예정이다.



2015 부동산가이드



주목! 새해에는 나도 부동산 부자

2015년 새해 벽두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은 바쁘게 움직인다. 이렇게 바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지난 해묵은 경기에 대한 지식 그대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 알아엿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자. 2015년 모르면 손해 부동산 제도.

1. 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르면 내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반 가까이 준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2. 청약 조건 완화

현재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로 인해 자격 변동시 당첨 취소, 계약 취소 등의 문제점과 결혼 등으로 인한 세대원의 세대주로의 변경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3월부터는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은 유지하되 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져서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10년 빨라진 재건축

빠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E등급)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2015 출처 : 부동산 114

201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내용	시기
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개편	상반기
국민주택 청약자격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	3월
입주자 저축 순위 1순위로 통합	3월
재건축 가능 연한 40년 -> 30년으로 단축	4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또는 기한 연장	연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	연내
저리 월세대출 신설 및 보증부 월세주택 금리 지원	1월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 10년 -> 8년 단축	1월
상가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연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연내
배곧신도시 첫 입주	7월
위례신도시 입주 본격화	11월

4. 저리 월세대출 신설

15년 한시적으로,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월세 미반한 위험에 대비하여 월세 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이상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0.2%p를 우대한다.

5. 상가임차권과 권리금 보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

선택하지 않는 해외 직구를 위해 check!



저렴한 가격에 남들이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사고 싶은 건 모두의 바람이다. 이 바람을 타고 해외 직구 열풍이 불고 있다. 해외 직구는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로 국내가 아닌 해외 사이트를 통해 쇼핑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기존 유통 구조를 바꾸고 있는 직구는 분명 '신의 한 수'다. SBI저축은행 가족들도 2015년 새해에는 신의 한 수로 '득템' 하길 바란다.

check 01 BIC 세일이 있는 달을 노려라

해외 직구의 매력은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거다. 연말이 다가오는 11월이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전 세계가 들썩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할인의 기회, BIC SALE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면 7, 9, 11 만 기억하자. 7월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 세일로 일주일 정도 여름 시즌 품목들의 세일이 이뤄진다. 9월은 노동자의 날(9월 첫째 주 월요일) 세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과 비슷한 개념이며, 그해 상반기의 모든 제품들이 세일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11월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 세일이다. 이때에는 주문이 많아 배송 기간도 평소의 2배나 걸릴 정도다. 최대 80% 이상 세일을 진행하며, 마진율 이하로도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연말 쇼핑의 적기로 불린다.

check 02 '별도 비용'을 확인하라

해외 직구에서 가장 헛갈리는 부분이 바로 제품 가격 외에 별도로 붙는 부가세다. 일반 통관 법상 구매 물품과 국제 배송료를 포함한 금액이 15만 원 이하 소액이면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된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세를 잘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달라 제품을 구입한 주의 법에 따라 제품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 무게가 같더라도 부피가 큰 상품에 붙는 부가세는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배송 대항의 경우에는 부가세 외에도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구의 매력이 싼 가격인 만큼 배송료와 부가세, 수수료 모두 저렴해야 한다. 배송 대항 사이트를 선택하는 기준도 바로 비용인데,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고 수수료를 배송비 요율에 포함시키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요금 측정의 기준도 무게, 부피로 저마다 다르다. 미국 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에 참고 혹은 지사를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check 03 조심, 또 조심하라

해외 직구의 장점 중 하나는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전자제품의 구입이 많은데 국내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제품의 경우 교환과 반품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주 실수하는 것은 플러그가 달린 가전제품의 구입 시 전압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다. 미국의 대부분 가전제품의 전압은 110V다. 물론 프리 볼트라 명시된 경우엔 '돼지코'라 불리는 플러그를 사용하면 해결되지만, 그 외에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에는 국내까지 배송되는 동안 상품이 변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 직구가 불가능한 물품도 있는데 씨앗, 사료, 특정 의약품,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 등은 항공 선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TIP. 배송에도 차이가 있다

USPS.COM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미국의 우체국 택배라고 생각하면 쉽다.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요금이 싸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다. 상품의 분실에 대비해 조화가 가능한 트래킹 넘버를 판매자에게 꼭 요구해야 한다.



UPS (United Parcel Service)

미국의 사설 택배로 USPS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다른 회사니 헛갈리지 않게 확인하자.



FedEx (Federal Express)

다른 배송회사에 비해 배송비가 비싸지만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 높은 배송비를 지불하면 다음 날 물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총알 배송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가장 알맞은 업체라는 평가다.



DHL (DHL Express)

유럽이나 중국 쇼핑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배송회사다. FedEx만큼 안전하며, 비슷한 수준의 배송 시스템을 갖고 있다.

TIP. 알아두면 편리한 해외 직구 용어

용어	설명
배대지	배송대행지의 줄임말
오프로드(off road)	항공사의 사정으로 예정대로 선적되지 못하고, 다음 편에 선적된다는 뜻
백오더(back order)	주문한 제품 부족으로 쇼핑몰에서 제조사에 제품을 신청한 상태를 말하며, 제품이 입고되어야 물품이 발송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백오더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는 쇼핑몰도 있음
세일즈 텍스(sales tax)	미국 내 배송지의 특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지역별로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음
프리쉽(free ship)	배송비 무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이벤트시 인터넷쇼핑몰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뜻함
핫딜(hot deal)	이전에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던 가격 혹은 최저가로 진행되는 세일로 실시간 핫딜 정보 활용 시 매우 유용함
shipping 어드레스(shipping address)	배송받을 주소를 말함 (배대지 주소)
billing 어드레스(billing address)	신용카드상 등록된 주소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부 쇼핑몰에서 국제거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배송지 주소와 다른 billing 어드레스를 적기도 하지만 실제 배송지와 다를 경우 판매 거절 대상이 되기도 하니 유의해야 함
트래킹 넘버(tracking number)	직구 쇼핑몰에서 발송한 송장번호를 말하며 메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물건 배송 위치와 무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음



강.북. 어디까지 가봤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했다. 그래서인지 상반기 이전 예정인 본사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새로운 해, 남다른 비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SBI저축은행에게 안성맞춤인 새 무대가 준비됐다. 한국 대표 기업들이 즐비한 서울의 중심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규모의 '센터원'이 바로 그곳이다. 빌딩숲이 뻗뻗했던 삭막한 강남을 떠나 즐길거리 가득한 강북에 새로운 터를 잡은 SBI저축은행 직원들을 위해 준비했다. 먹을거리, 즐길거리 넘치는 센터원을 더욱 잘 즐기는 방법.

SBI저축은행 임직원을 위한 강북 생활 Tip

에디터 김보람

강북멋쟁이의 시작은 문화 충전

1 365일 즐거운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한 **광화문**

빌딩숲이 즐비했던 강남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곳! 도심 한 가운데 탁 트인 광장이 있는 광화문은 365일 다채로운 행사로 가득하다. 각종 전시에 문화행사, 장터에 캠페인까지. 볼거리가 넘쳐나는 광화문은 센터원 이전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1월 사랑의 온도탑 행사부터 매 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어지니 점심시간 잠시 짬을 내 거닐어보는 것은 어떨까?



2 시간여행은 물론 미술감상에 푹 빠지는 **덕수궁**

점심은 먹었는데, 회사는 들어가기 싫을 때. 강남에서는 근처 카페 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면, 강북멋쟁이들은 다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음의 양식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덕수궁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덕수궁에서 만나는 수문장 교대식과 미술관람은 색다른 문화적 영감을 선물한다. 하루 정도 짬을 내 부서원들과 함께 미술관 데이트를 갖는 것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 크레이티브 감성을 가득 채우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강남에서 강북으로 보금자리는 변했는데, 생활이 같다면 무슨 소용 있을까? 강북의 다채로운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해야 진짜 강북멋쟁이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새로이 강북멋쟁이로 거듭나려는 SBI저축은행 직원들에게 강북에서도 크레이티브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를 추천한다. 독특한 외관 만큼이나 디자인 용품이나 서적, 카페와 같이 크레이티브가 넘쳐나는 내부는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샘솟게한다.





강북멋쟁이를 완성하는 맛의 거리

1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다동무교동 음식문화의거리**

점심 메뉴는 뭐가 좋을지, 이번 회식은 또 어느 식당을 정해야 좋을지... 고민이다?
이제 메뉴 고민! 장소 고민은 그만!
센터원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하는 다동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는 삼겹살 맛집에 다음날 해장에 좋은 콩나물 국밥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있다.
매일 맛집 탐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2 트렌디한 맛집이 가득한 **종각 젊음의 거리**

비빔 강남 생활에 지쳐있던 SBI저축은행 직원들에게엔 회소식! 청계천이 내려다 보이는 센터원은 생활의 활력이 된다. 어제 얼큰한 김치찌개를 먹었다면 오늘 점심엔 멋들어진 파스타는 어떨까.
일주일에 하루쯤은 트렌디한 맛집이 즐비한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멋부리며 점심시간을 즐겨보자.



3 퇴근 후 소주 한 잔이 생각날 때 찾는 **광장시장**

얼마전 끝난 드라마 '미생'을 보고 있노라면 퇴근 후 간단하게 소주 한 잔 기울일 곳 없는 강남생활이 딱딱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강북에선 다르다.
센터원에서 조금 더 가면 빈대떡이 유명한 광장시장이 있다. 퇴근 후 뜨끈한 빈대떡에 소주 한 잔이면 하루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
다만 강북에서 택시잡기는 강남보다 3배는 어려우니 건강도 챙길겸 간단하게 한 잔 후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한다.





세 평의 행복, 연꽃 빌라
지음 무레 요코 옮김 김영주
펴냄 레드박스

소박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이야기해 온 작가 무레 요코의 장편소설 『세 평의 행복, 연꽃 빌라』. 무레 요코는 1984년에 데뷔한 이래 삼십여 년 동안 톡톡 튀는 에세이와 공감 가는 소설 들을 발표,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믿고 읽는 작가'로 통한다. 한국에서도 『카모메 식당』과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 단 두 작품으로 까다로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 평의 행복, 연꽃 빌라』는 푸념밖에 할 줄 모르는 엄마와 진심이라고는 없는 직장 생활에 질린 교코가 마흔다섯이라는 나이에 안락한 집과 뽕뽕한 직장을 떠나 다 쓰러져 가는 빌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을 그린다. 앞서 소개된 두 작품이 자아 강한 주인공들이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모습을 그렸다면, 이번 작품은 교코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히 귀 기울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카모메 식당』의 씩씩한 사치에나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의篤심 있는 아키키를 마냥 부러워하기만 했다면 이 작품을 읽으며 교코와 함께, 세상이라는 거센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지켜 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015년 새해 첫 추천도서 감성을 가득 담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오후 세 시, 그곳으로부터
지음 최예선
펴냄 지식너머

서울의 풍경과 오래된 집을 찾아 떠나는 예술 산보. 서울에 머물며 서울에 대한 글을 쓰고자 했던 저자는 이 도시를 걸으며 만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때로는 그들이 남기고 간 빈 터 위에서, 또 어떨 때는 건물이나 가옥에서,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이 남긴 메모나 물건을 통해 그들이 살았던 오후 세 시, 서울에 대해 묻는 것이다. 지금의 명동 및 소공동 일대와 모던 보이가 등장했던 1930년대 경성시대의 소공동은 저자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교차되듯 새롭게 눈앞에 펼쳐진다. 나혜석이나 전혜린과 같은 인물들을 불러들여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바로 옆에서 밀착 취재를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책을 다 읽고 나면 지금의 서울을 더 다정하게 바라보게 된다. 매일같이 걷는 이 도시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길, 낭만적인 '서울 예술 산보' 코스를 소개한다. 한 소설가가 서울을 '달콤한 나의 도시'라고 지칭했던 것처럼 우리가 뿌리내린 이 도시를 한번쯤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지음 송정림 그림 박경연
펴냄 나무생각

오랜 시간 라디오 방송작가로 글을 써온 작가는 실생활에서 건져 올린 잔잔한 이야기들을 특유의 따뜻하고 담백한 문체로 담아내어, 가슴속에 진한 여운과 몽근한 울림을 준다. 작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임을, 진정한 회복임을 따뜻하게 전하고 있다.

“창호지로 된 찜은 서서히 찾아오는 어둠도 천천히 걸러내며 방 안으로 배달해 줍니다. 창밖에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도 한 겹 걸러서 낮게 전달합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 하루치의 일과를 정리하는 분주함도 한 박자 늦춰서 전해줍니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도 이 마음에, 이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것이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는 삶의 따뜻한 온기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보석처럼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고, 품고, 기억하는 일은 참 행복한 일임을 아는 작가는 그 사람들과 의기투합하여 기운차게 삶을 살아가는 일은 참 신명나는 일이라 표현한다. 자신이 머문 자리, 지구의 한 귀퉁이에 힘껏 꽃을 피우는 사람의 이야기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운 꽃물이 번지듯 세상이 조금씩 환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에디터 김보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금, 거창한 새해 계획들로 조금하진 않으신가요?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을수록 마음속에는 여유가 더욱 필요합니다. 2015년 새해 SBI저축은행 가족들에게 감사 가득한 여유를 선물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에게 다가서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감성 채우고 출발하세요.



저지르고 후회해도 결국엔 다
괜찮은 일들
지음 이소연
펴냄 예담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한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후회는 남게 마련인 듯하다. 그래도 이왕이면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기에 ‘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반성을 하게 돼서 앞을 보게 하지만, 안 하고 나서의 후회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말도 있는 게 아닐지.

후회의 과정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결국에는 다 ‘괜찮다’는 사실 그리고 ‘추억할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이소연 KBS 드라마 PD는 전작인 『후회할 줄 알면서 저지르는 일들』, 『지금 저지르지 않으면 후회할 일들』에 이어 이 책 『저지르고 후회해도 결국엔 다 괜찮은 일들』에서 한층 더 성숙하고 공감되는 인생의 장면들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했고, 많은 것을 바꾸었다. 그래도 늘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아 자주 허탈함을 느끼기도 한다. 때론 뒷걸음질도 치고 제자리걸음도 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실수도 실패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얻은 것도 많았을 것이다. 무너졌을 때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을 테고, 그 과정 속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고민해 왔을 테나……. 다양한 인생의 장면들 사이를 우리는 대체로 저지르고 후회하면서 걸어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그 길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함께하는 SBI | SBI Quiz, 다음호 안내

SBI Crossword Puzzle

1			4			
						5
2						
3						

SBI Quiz/안내

가로 풀이 열쇠

- 2014년 11월 1일은 SBI저축은행이 새롭게 태어난 날.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 목동지점에 방문하신 고객님의 쓰러지셨을 때 지점에서 취한 응급처치는 무엇인가요?
- 겨울호 힐링타임은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체험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준 꽃으로 만든 선물은 무엇일까요?

세로 풀이 열쇠

- 실패하지 않는 해외 직구를 위해 잘 확인해야 할 별도 비용은 무슨 법 때문인가요?
- 텔러 공채 신입사원들은 맛있는 파스타를 먹으며 누구를 만나 조언을 얻었을까요?
- 서울 중심에 위치한 금융가 랜드마크로 SBI저축은행의 새로운 무대가 될 이곳은 어디일까요?

[겨울호 퀴즈 이벤트 참여 안내]

크로스워드 퍼즐을 다 채우셨나요?

정답을 홍보부 김원준 사원(karlos7979@sbisb.co.kr)에게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무점한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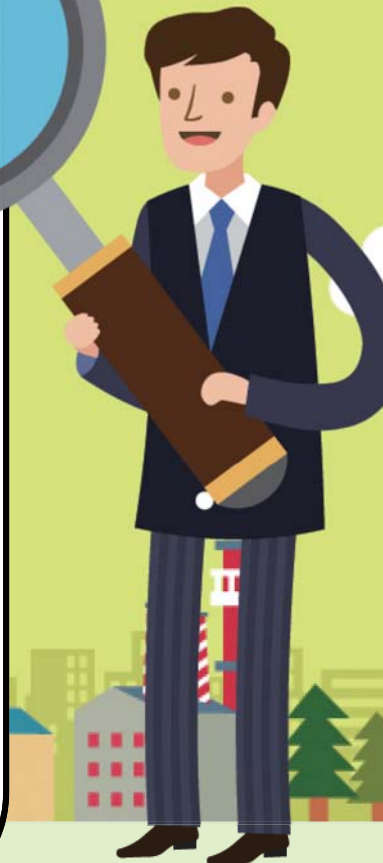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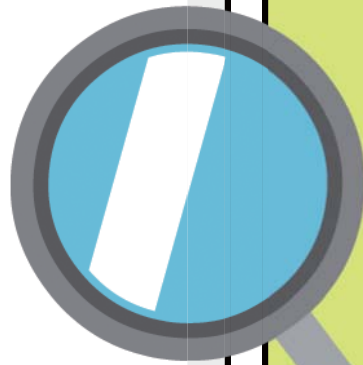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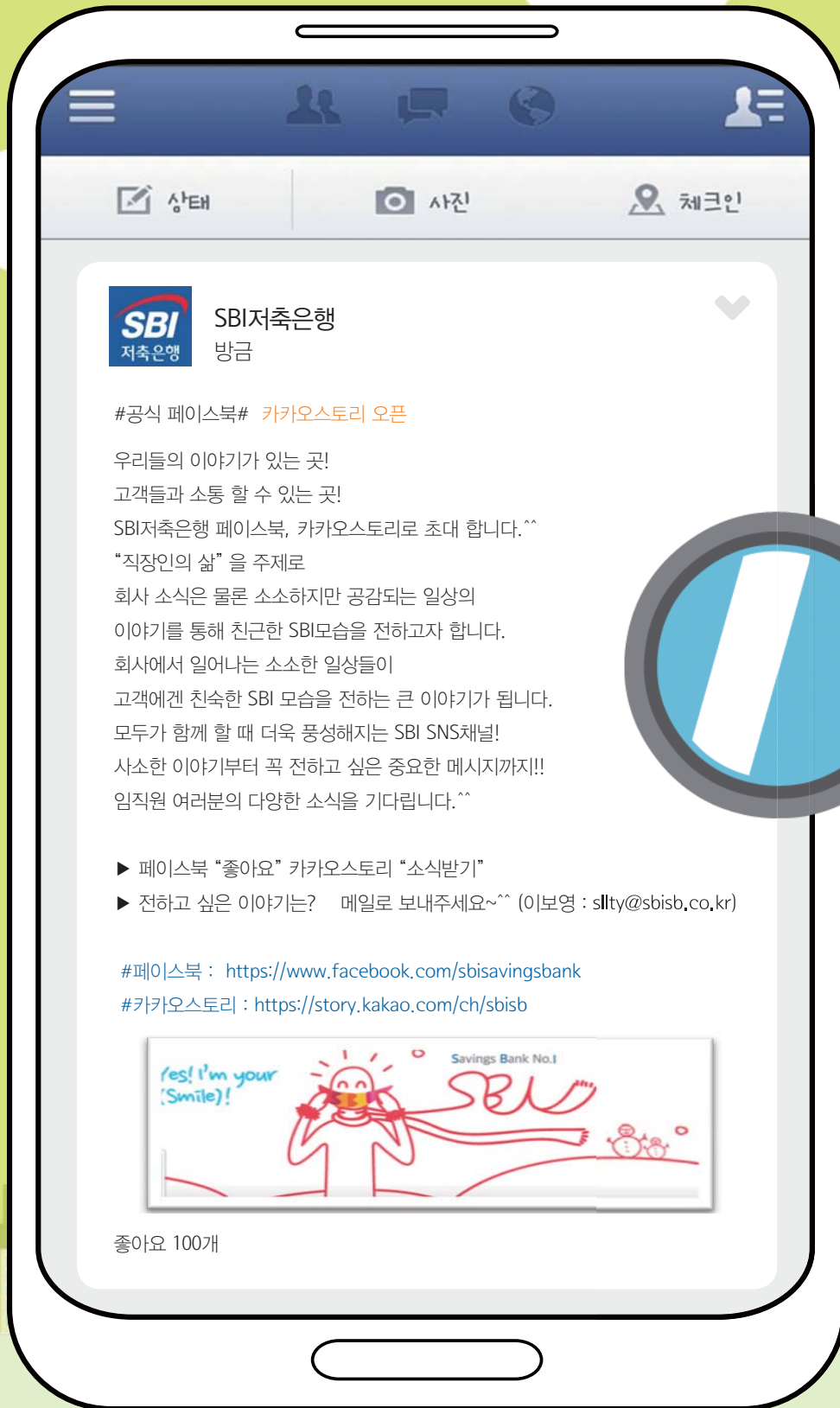
가을호 퍼즐 정답

나	카	가	와	다	카	시
					트	
대						기
전		만	남			상
본			녀			캐
점			공			스
	고	객	감	등	센	터



SBI저축은행

공식 페이스북 & 카카오토리가 오픈했어요~





SBI 저축은행 WEBZINE

2015년 겨울 Vol.4

희망

Yes! I'm your(Hope)!